<h1>나 혼자만 레벨업-15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jfe9e3087c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15화</p>  
<p>\*\*\*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던전과 달리 인던에는 리스폰 개념이 있었다.</p>  
<p>2층 몬스터들을 싹쓸이하는 동안 1층 몬스터가 리스폰 되고, 1층 몬스터들을 몰아 잡는 동안 2층 몬스터가 리스폰 되었다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진우는 1층과 2층을 왕복하며 더이상 레벨이 오르지 않을 때까지 몬스터들을 잡았다.</p>  
<p>'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.'</p>  
<p>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서 어떻게 몬스터가 튀어나올지도 예상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.</p>  
<p>"위에서 원숭이가 떨어지고."</p>  
<p>천정에서 낙하하는 원숭이 몬스터의 긴 손톱을 사뿐하게 피하고 놈의 가슴에 검을 찔러 넣은 뒤.</p>  
<p>"끼엑!"</p>  
<p>"좌우에서 고양이 한 마리씩."</p>  
<p>양쪽에서 덮쳐드는 검은 표범의 목을 차례대로 베었다.</p>  
<p>"캬악!"</p>  
<p>"캭!"</p>  
<p>[칼날 손톱 브리가를 처치하셨습니다.]</p>  
<p>[검은 그림자 라잔을 처치하셨습니다.]</p>  
<p>[검은 그림자 라잔을 처치하셨습니다.]</p>  
<p>여기까지가 2층의 끝.</p>  
<p>또다시 지하 2층을 올 클리어했다.</p>  
<p>그래도 레벨은 한참 전부터 15에 고정되어 있었다. 아마도 1,2층에서는 15까지가 한계인 듯했다.</p>  
<p>"스탯."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45 체력: 24 민첩: 24 지능:24 감각: 24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레벨이 15쯤 되다 보니 스탯도 많이 올라갔다.</p>  
<p>민첩 역시 25에 가까워졌다.</p>  
<p>민첩이 2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근력과 민첩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.</p>  
<p>민첩은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의 속도를 느리게 보이게끔 만들어 준다.</p>  
<p>'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.'</p>  
<p>원숭이가 떨어지는 장면이나 표범이 달려드는 장면이 느릿하게 보였다.</p>  
<p>시간을 딱딱 끊어서 사용하는 느낌이라고 할까?</p>  
<p>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쉬웠고, 적에게 공격을 맞추기도 쉬웠다.</p>  
<p>말 그대로 '민첩'해지는 것이다.</p>  
<p>속도는 무릇 상대적인 것.</p>  
<p>민첩 스탯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로 간의 격차가 커져, 상대의 눈에는 가공할 만큼 빠른 움직임으로 비칠 것이다.</p>  
<p>'근력과 민첩이 높아지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겠네.'</p>  
<p>그게 민첩 스탯에 대한 최종 평가였다.</p>  
<p>"그건 그렇고."</p>  
<p>진우의 고개가 돌아갔다.</p>  
<p>"저기는 어쩐다..."</p>  
<p>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.</p>  
<p>3층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1,2층 사냥을 반복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.</p>  
<p>'소름 끼치는군.'</p>  
<p>감각 스탯이 상승할수록 3층에서 흘러나오는 음산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다.</p>  
<p>이 밑에는 분명 뭔가 강력한 존재가 있었다.</p>  
<p>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입구에서 들었던 메시지를 떠올렸다.</p>  
<p>[던전을 나갈 수 없습니다. 보스를 처치하거나, 귀환석을 가지고 오십시오.]</p>  
<p>보스(Boss)의 존재.</p>  
<p>진우는 놈을 상대하기 위해 1,2층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레벨을 올렸다.</p>  
<p>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는데도 막상 내려가야 할 때가 오니 긴장되기 시작했다.</p>  
<p>진우는 양손으로 가볍게 뺨을 짝짝 때렸다.</p>  
<p>'던전에 들어왔는데 보스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돌아갈 순 없잖아?'</p>  
<p>적당한 긴장감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.</p>  
<p>이 정도가 딱 좋다.</p>  
<p>진우는 검을 양손으로 쥐고서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.</p>  
<p>계단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까?</p>  
<p>마른침이 꼴깍 넘어갔다.</p>  
<p>조명은 1,2층보다 훨씬 어두웠지만 시야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.</p>  
<p>'감각 스탯 때문인가?'</p>  
<p>시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았다.</p>  
<p>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가 보였다.</p>  
<p>아니, 선로였던 곳이 보였다.</p>  
<p>지하철이 다녀야 할 길에는 전동차나 레일 대신 검은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.</p>  
<p>'뭐야, 저건?'</p>  
<p>선로가 아니라 무슨... 호수나 강처럼 보였다.</p>  
<p>진우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해 한 발 앞으로 내디딘 순간이었다.</p>  
<p>물에서 기다란 통나무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.</p>  
<p>쉬이이익-!</p>  
<p>'빠르다!'</p>  
<p>눈 깜짝할 사이에 코앞까지 쇄도한 '그것'은 통나무가 아니라 통나무만한 굵기의 살아 있는 뱀이었다.</p>  
<p>"헙!"</p>  
<p>진우는 급한 대로 검으로 뱀의 대가리를 쳐 냈다.</p>  
<p>챙강!</p>  
<p>진우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"아니?"</p>  
<p>돌진해 오던 뱀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으나, 요긴하게 쓰던 강철검이 부서지고 말았다.</p>  
<p>진우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뱀도 의외의 반격에 놀랐는지 바로 다시 공격해 오지 않고 멀찍한 곳에 똬리를 틀고서 진우를 뚫어지게 노려 보았다.</p>  
<p>'늪의 지배자, 푸른 독니 카사카.'</p>  
<p>주황색으로 써진 놈의 이름이 선명히 보였다.</p>  
<p>흰색 이름을 가진 일반 몬스터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단단한 놈이었다.</p>  
<p>'아무리 그래도 마력이 주입된 검이 쪼개지다니.'</p>  
<p>진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카사카를 관찰했다.</p>  
<p>카사카의 온몸을 덮고 있는 푸른빛 비늘이 번들거렸다.</p>  
<p>갑주를 두른 것처럼 비늘은 놈의 전신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.</p>  
<p>검격이 통하지 않는 비늘이다.</p>  
<p>주먹질로는 어림도 없겠지.</p>  
<p>진우의 생각이 거기까지 다다랐을 때, 카사카가 먹잇감에 대한 파악을 끝냈는지 재차 돌진해 왔다.</p>  
<p>다시 봐도 엄청난 속도였다.</p>  
<p>쉬이이익-!</p>  
<p>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다.</p>  
<p>'온다!'</p>  
<p>온 정신을 집중하자 처음에는 형태도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었던 카사카의 공격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.</p>  
<p>민첩 스탯의 힘이었다.</p>  
<p>카사카가 입을 쩍 벌리고 덮치려는 순간, 진우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녀석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놈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두 팔로 조였다.</p>  
<p>우드득!</p>  
<p>진우의 근력 스탯은 50을 향하고 있었다.</p>  
<p>무시무시한 압력이 뱀의 동맥에 가해졌다.</p>  
<p>빠져나가지 못하게 된 뱀은 괴로운 지 온몸을 비틀며 몸부림쳤다.</p>  
<p>진우는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힘을 주었다.</p>  
<p>쾅! 쾅!</p>  
<p>진우는 벽과 바닥에 몸을 부딪치면서도 끝까지 양팔을 놓지 않았다.</p>  
<p>'만약 올릴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레벨을 올리고 오지 않았더라면...'</p>  
<p>가정이란 것은 원래 끝이 없는 법이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다.</p>  
<p>한계까지 올려 두지 않았다면.</p>  
<p>근력 스탯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다면.</p>  
<p>카사카를 잡는 데 상당한 곤혹을 치렀을지도 모른다.</p>  
<p>어쩌면 여기가 무덤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2층에서 바로 3층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판단은 현명했다.</p>  
<p>결정이 옳았다.</p>  
<p>뿌드득!</p>  
<p>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카사카의 머리뼈가 부서졌다.</p>  
<p>['늪의 지배자 푸른 독니 카사카'를 처치하셨습니다.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역시 보스몹.</p>  
<p>카사카를 잡았더니 단숨에 2레벨이 올라 버렸다.</p>  
<p>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.</p>  
<p>15에 고정되었던 레벨이 17까지 올라갔다.</p>  
<p>오늘 하루 동안 1레벨에서 17레벨까지,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린 것이다.</p>  
<p>'하지만.'</p>  
<p>경험치 때문에 보스몹을 잡는 사람은 없다.</p>  
<p>보스몹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아이템!</p>  
<p>축 늘어진 뱀을 살피고 있자니 이내 뱀의 몸속에서 두 개의 빛이 반짝거렸다.</p>  
<p>'보스라고 아이템이 두 개나?'</p>  
<p>진우가 기쁜 낯빛으로 손을 뻗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니]를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겠습니까?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샘]을 발견했습니다. 획득하겠습니까?</p>  
<p>"모두 획득."</p>  
<p>말을 하자마자 진우의 손 위로 뼈로 된 단검 하나와 액체가 담긴 주머니 같은 것이 생겨났다.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니]</p>  
<p>입수 난이도: C</p>  
<p>종류: 단검</p>  
<p>공격력 +25</p>  
<p>카사카의 독니로 만든 단검입니다. 카사카의 독이 남아 있어 공격 시 마비, 출혈 효과를 부여합니다. 인벤토리에 보관하시거나 상점에 파실 수 있습니다.</p>  
<p>효과 '마비': 공격받은 대상이 일정 확률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.</p>  
<p>효과 '출혈': 공격받은 대상의 체력이 1초에 1%씩 소모됩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뼈가 아니라 이빨로 만든 단검이군. 옵션을 보니 괜찮은 아이템인 거 같은데?'</p>  
<p>다음은 주머니 차례였다.</p>  
<p>[아이템: 카사카의 독샘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비약</p>  
<p>정제된 카사카의 독액이 담겨 있는 주머니입니다. 카사카를 잡으면 극히 희박한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. 독액을 마시면 단단한 피부를 얻게 되지만 독성으로 인해 근육이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.</p>  
<p>효과 '카사카의 철갑 비늘': 물리 데미지 20% 감소</p>  
<p>부작용 '손상된 근육': 근력 -35</p>  
<p>진우의 표정에 희비가 교차했다.</p>  
<p>카사카의 독니 같은 경우는 부러진 강철검을 대신할 좋은 무기였다.</p>  
<p>강철검의 두 배가 넘는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마비나 출혈 효과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.</p>  
<p>'그런데 독샘은 좀...'</p>  
<p>처음엔 입수 난이도 A등급의 아이템이 떠서 기뻐했는데, 설명을 찬찬히 읽어 보니 마냥 반길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.</p>  
<p>물리 데미지 20퍼센트 감소는 입수 난이도 A등급에 맞는 훌륭한 옵션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근력 스탯이 무려 35나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패널티가 있었다.</p>  
<p>특히 지금은 능력치 포인트를 근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놓은 터라 더 뼈아픈 손실이었다.</p>  
<p>양날의 검이라고 할까?</p>  
<p>아니, 계륵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는 물건이었다.</p>  
<p>후에 근력 스탯이 엄청나게 올라서 35 정도는 떨어져도 별 타격이 아닐 때 사용하면 모를까, 지금 당장 마시기는 무리였다.</p>  
<p>"...일단은 넣어 두자."</p>  
<p>씁쓸한 표정으로 단검과 비약을 인벤토리에 넣었다.</p>  
<p>차라리 A급 단검과 C급 비약이 나왔으면 아쉬움이 덜 했을까, C급 비약이야 버리면 그만이니.</p>  
<p>그때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보스가 처치되었으므로 던전 내부가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됩니다.]</p>  
<p>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약간의 현기증과 함께 시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.</p>  
<p>주위를 둘러보니 평범한 지하철역이었다.</p>  
<p>조명은 언제 그랬나 싶게 밝았고, 선로에 가득 차 있던 물도 없어졌다.</p>  
<p>"근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?"</p>  
<p>사람만 없는게 아니라 지하철도 다니지 않았다.</p>  
<p>벌써 지하철이 끊길 시간인가 싶어 시간을 확인했다.</p>  
<p>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.</p>  
<p>점심때 합정역 안으로 들어왔으니 여기서 무려 9시간이상을 보낸 셈이다.</p>  
<p>'많이도 지났네.'</p>  
<p>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피로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지쳐서 몇 번은 쓰러졌을 시간이었다.</p>  
<p>'그래도 지하철이 끊기기엔 아직 이른데?'</p>  
<p>아무리 기다려도 지하철이 오지 않자 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일단 지하철역을 빠져나가기로 했다.</p>  
<p>가는 동안에도 내내 사람은 볼 수 없었다.</p>  
<p>그렇게 계단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누군가 진우에게 소리쳤다.</p>  
<p>"이봐요!"</p>  
<p>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.</p>  
<p>총을 든 군인이었다.</p>  
<p>"당신 뭡니까? 왜 거기서 나와요? 방송 못 들었어요?"</p>  
<p>군인의 표정이 워낙에 심각해서 덩달아 진우의 얼굴도 굳어졌다.</p>  
<p>"무슨 일 있습니까?"</p>  
<p>"아니, 지금 그걸 말이라고."</p>  
<p>다가오던 군인이 진우의 손에 들려있는 부러진 검을 발견했다.</p>  
<p>부러지고 난 뒤론 인벤토리에 들어가 지지도 않고, 그대로 버려두고 가기에도 뭐해서 일단 들고나온 것이었다.</p>  
<p>그걸 본 군인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다.</p>  
<p>그는 진우의 행색을 찬찬히 살폈다.</p>  
<p>자세히 보니 진우의 옷 여기저기에 전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.</p>  
<p>험악하던 군인의 표정이 풀어졌다.</p>  
<p>"혹시 헌터님이십니까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